■ 민주 지방선거 대표 공약 '4대강 저지' 선포… 영산강은?

전남지사 후보들 "당론이냐 현실이냐"

박준영 "친환경 수질개선 시행"
이석형 "샛강 살리기 우선해야"
주승용 "토질오염 조사후 진행"

민주당이 4대강 공사 저지를 6·2 지방선거의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영산강 사업'이 전남지사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의 경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영산강 사업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 후보는 당론과 영산강 현실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4대강 사업 저지 지방선거 공약 선포식'을 열고 이번 선거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

민주당은 후보자 일동 명의의 성명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며, 생명의 젖줄인 강을 되돌릴 수 없이 훼손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영산강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선포식 참가자들도 낙동강과 한강 등에 대한 환경파괴 문제는 집중 거론했으나 영산강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4대강 저지'에 영산강이 포함된 것인지, 아'민주당 입장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영산강의 치수사업을 반대하지 않았다. 즉 영산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이명박 정부식의, 토목공사 위주의, 환경파괴적 영산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후보들도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입장이 비슷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당원으로서 민주당의 공약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영산강의 수질오염이 4대강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는 점에서 영산강만큼은 친환경적 수질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사는 또 "영산강 수질개선사업은 지역민의 숙원이자 지난 지방선거 때 전남지사 선거 공약으로 오래전부터 추진해왔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석형 예비후보는 우선 "4대강 사업은 백년대계(百年大計)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심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등 그 어떤 사업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영산강 복원 사업도 백년대계 사업인 만큼 정권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조바심으로 '삼년지소계(三年之小計)'의 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영산강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이 끝난 만큼 공사 자체는 진행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단, 샛강을 우선 살리는 등 생태기능 복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평가 및 계획을 입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재앙 불러올 MB(이명박)식 영산강 죽이기는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날림으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에만 근거해 엄청난 양의 오염된 강 바닥을 마구 파헤치다가는 어떤 재앙에 직면할지 모른다"며 "토질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영산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염의 근본 원인인 상류와 지류의 오염원부터 제거하고 정화하는 시설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며 "수질오염과 주변 농경지 침수를 유발하는 보 건설도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김대식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수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산강 사업은 현재 정부의 방식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21일 오전 국회 앞 계단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선포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원내대표 경선 '5파전'

박지원·김부겸 2강속 이석현·강봉균·박병석 추격

민주당의 차기 원내사령탑 자리를 둘러싸고 물밑 경쟁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어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높다.

현 이강래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중순. 아직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5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4선의 이석현 의원을 필두로 3선의 강봉균, 김부겸, 박병석 의원과 재선의 박지원 의원이 양보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박지원· 김부겸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후보들이 추격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그러나 계파 간의 쏠림이나 지역별 대립구도 등이 분명치 않아 막판까지 경선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의 박지원 의원은 출신 지역 및 계파와 상관없이 인물로 승부하겠다는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서번트(servant) 리더십'을 강조,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는 '비서실장'으로 원내에서 당의 존재감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유의 친화력은 물론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면서 거대 여당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됐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영남 출신으로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부겸 의원은 '동진(東進)론'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경선에서 민주당이 영남출신 의원을 원내 사령탑으로 뽑는 신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당의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강봉균 의원은 '개헌론'으로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개헌 논의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관철, 여야가 정책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공약이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은 '중도개혁과 정책역량'을 키워드로 삼고 있으며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석현 의원은 '비당권파 연대론'을 내세우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도 물밑경쟁 '후끈'

정의화·이병석 구도속 황우여·안경률 거론

한나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원내사령탑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물밑경쟁이 뜨겁다.

핵심 당직자는 "안상수 현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5월21일까지로, 당헌.당규상 임기 만료 1주일 전 후임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5월 10일을 전후로 원내대표 경선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4선의 정의화 최고위원과 황우여 의원, 3선의 이병석 안경률 의원 등으로, 중립 성향의 황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이(친이명박)계에 속한다.

이중 정 최고위원과 이 의원이 가장 열의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은 이미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까지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은 재선의 이종구 의원을, 이 의원은 3선의 심재철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로선 친이 주류측은 경북 포항 출신 이 의원에게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집권 중.후반기를 맞아 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려면 합리적인 동시에 로열티 높은 인물이 원내사령탑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 최고위원이 배수진을 치고 있고, 또 다른 정치적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결과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연히 차례로 봐서도 그렇고 이번에는 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당이 국민에게 실망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화합과 타협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미 결심을 굳히고 상당수 지지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계 주류측에서는 이 의원이 세종시 논란 등 현재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과 결단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대표를 맡고 있는 안 의원이 아직 최종 출마 결심을 굳히지 않은 상태여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세종시 문제로 친박(친박근혜)과 결별위기에 놓인 김무성 의원의 거취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민주 386 '배심원제' 업고 세대교체 노리나

지방선거 대거 출사표 … 당내 경선 공천장 딸지 미지수

민주당의 '386 인사'들이 6·2 지방선거에 대거 출사표를 던짐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얼마나 성공해 본선에 나설지 주목된다. 386이 가장 기대를 거는 공천방식은 '시민배심원제'이다.

서울에서는 성북의 경우, 진영호 전 구청장이 여론조사에서 앞선 가운데 기동민 전 청와대 행정관, 김영배 전 청와대 비서관, 윤건영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86인사들이 공천권을 얻기위해 뛰어들었다.

동대문에서는 친노 386인 서양호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 민주계의 유덕열 전 구청장에게 도전장을 던졌고, 마포는 박홍섭 전 구청장에 맞서 친노386인 이은희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이 역전을 노리고 있다.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된 은평에선 이미경 사무총장 보좌관 출신인 김우영씨가 경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들이 기득권의 벽을 뚫고 공천장을 따낼지는 미지수이다.

조직선거를 배제하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기 위한 '시민공천배심원제' 대상 지역이 제한적 수준에 그친 탓에 당원선거와 여론조사 등으로 이뤄지는 경선에선 조직과 인지도가 앞선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한 386인사는 21일 "호남향우회 중심의 조직을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 판세가 좌우되는 게 사실"이라며 "호남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내밀기 힘든 형편"이라고 말했다.

텃밭인 호남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더욱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일부 호남 지역의 현직 단체장들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신인들이 공천되더라도 정작 본선에서 고배를 마실 공산마저 제기된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386인사들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진 출신이 상당수여서 공천 결과에 따라 친노그룹이 주축을 이룬 주류와 정동영계, 구 민주계 등 비주류간 역학구도와 오는 7월 당권경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송영길 최고위원을 비롯, 안희정 최고위원(충남지사)과 이광재 의원(강원지사)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386 대표주자들의 성적표도 세대교체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회사매각공고

◆위 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산알미늄(주) 알미늄제조(압출) 공장
- 연매출액 100억

◆특장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 062-523-0004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아파트론 -無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선거
홍보물 제작·시공
대형현수막 홍보물 명함 간판 현판 배포 공약집 어깨띠 광고대행
www.jwad.co.kr
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73-2285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I.C 입구)
▷ 동신대 ~ 나주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